

노동정책연구

2002. 제2권 제3호 pp.101~136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성지미*
안주엽**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다. 자영업 연구는 기업이 정신을 가진 자영업의 생성 또는 창업, 성장, 그리고 소멸의 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한 개인의 자영업 선택에 치중하여 왔으나 본 연구는 자영업의 성장 과정을 자영업 소득과 자영업 매출액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경제적 성과와 개인적 특성이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교육 수준 이외에도 이전 직장의 경험과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가 자영업 소득에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연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영업의 규모와 중장기 목표를 들 수 있다. 서열화된 로짓모형을 이용한 자영업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에서는 경제적 성과 이외에도 창업 동기나 중장기 목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의 정책적 시사점은 자영업 창업 과정에서의 금전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목표의 설정 등 자영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심용어 : 자영업, 경제적 성과, 중장기 목표

I. 서론

우리나라 고용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

투고일: 2002년 8월 23일, 심사의뢰일: 8월 30일, 심사완료일: 9월 15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jsung13@chollian.net).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jyahn@kli.re.kr)

필자들은 노동패널연구회 모임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분들과 익명의 논평자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들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

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취업자 21,362천 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8,023천 명)에 이르고 있다.¹⁾ 이 중 고용주가 19.6%, 자영자가 57.3%, 가족종사자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낮은 미국의 8.1%에 비해 3.5배나 높은 비율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0).

자영업주의 높은 비율은 영세한 자영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1999년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67.4%로 파악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자영업 특히 소규모 자영업의 성장은 개별 업체의 측면에서 업체의 성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소득 증가와 연결되며 국가 차원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의 선택은 시장 자체의 노동수급 여건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호 및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전체 노동공급의 약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자영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비롯한 자영업에서의 성공 및 성장 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계치를 제시하는 데 그쳤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김우영(2000)은 근로자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두 대안의 선택요인을 분석하고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종사상지위를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김재호·조준모(2000)는 최초 취업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로 표본을 구분하여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비교하였다. 안주엽(2000)은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의 선택을 결정짓는 요인을 성별로 분리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성지미(2002)는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영업 연구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자영업의 생성(창업), 성장(경제적 성과 등), 소멸의 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1) 류재우·최호영(1999)은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자영업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자영업주가 가지는 특성을 자영업을 선택한 동기, 자영업에 대한 태도, 자영업 경영과 관련하여 훈련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Delage, 2002). 자영업의 창업 동기, 창업 당시의 훈련이수 여부, 이전 직장의 경험, 자영업에 대한 태도 등은 기업가 정신의 기본이 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자영업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성장 과정 중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는 미시적으로 자영업자의 개별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거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창업지원 등 정부가 실시하는 자영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영업 연구에서는 개인적 능력, 초기 자본 및 자영업 선택동기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보이는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 해소해 준다. 이를 이용하는 본 연구는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자영업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정책 설정 또는 프로그램의 설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창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영업의 성장 과정에서 기존의 경험과 관련 지식의 확산 및 시장정보와 기업정보 등의 제공 및 필요한 훈련의 실시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자영업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주 개인과 자영업 사업체의 특성에 더하여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요인들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자영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경제적인 성과를 월평균 자영업 소득으로 정의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월평균 자영업 소득은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근로시간을 통제한 시간당 자영업 소득을 동시에 분석한다. 둘째, 경제적 성과의 지표로 연간 매출액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자영업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 1인당 매출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자영업의 창업 동기, 자영업주의 이전 직장 경험(자영업 또는 전문직 임금근로),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그리고 창업 당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이수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사업체의 특성에 더하여 경제적 성

과가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자영업과 관련된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자료의 특성을 개략한 후 본 연구에 사용되는 1,258개 표본이 선택된 과정과 표본의 구조 및 특성을 소개하고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한다. 제Ⅲ 장에서는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월평균(또는 시간당) 자영업 소득, 연간(또는 1인당) 매출액,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국한하고, 자영업주의 개인적 특성 및 사업체의 특성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자영업주의 이전 직장 경험, 자영업의 증장기 목표, 자영업 창업 당시 훈련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추가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가설·검정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Ⅱ. 실증분석을 위한 자영업 표본의 특성

1. 자료 및 표본

가.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다. 1998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하는 한국노동패널은 제2차 조사(1999년)부터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류(유형 1~8까지)하고 각 조사 시점 사이에 발생하거나 소멸한 일자리를 추적하고 있다. 제3차까지(2000년)의 자료를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색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데 비해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제4차 조사(2001년)에서는 비록 부가조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은 상당히 보강되었다. 이는 향후 비임금근로(이하에서는 ‘자영업’이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는 껍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노동패널 제4차 조사에 포함된 자영업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업종, 사업체명, 사업체 소재지, 무급가족종사자 수 및 사업체 규모 등 현 사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 ② 사업체 시작 시점, 창업 동기, 유산상속 여부 및 상속자, 사업체 창립 시점, 사업체 시작 당시 자본금, 자본금 조달방법 및 구성 등 창업 당시의 상황, ③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다양한 창업훈련(7종) 이수 여부, ④ 자금, 기술확보 등 6가지 측면에서의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8가지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자영업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Likert scale), ⑤ 자영업 근로의 규칙성 및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⑥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에와 현재(또는 그만둘 당시)의 월평균 자영업 소득 및 연간 매출액, ⑦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⑧ 7가지 중 주가 되는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를 묻고, ⑨ 자영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또한 조사된 자영업이 조사 시점 당시에 주된 일자리로 응답된 경우, 유형별 자료에서 얻어진 자영업에 관한 정보와 취업자 개인 공통에 나타나는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취업자 개인 공통에서 취득 가능한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로는 조사 시점 직전 한 주의 요일별 실제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장단 및 근로시간 감축 또는 연장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소득, 안정성 등 7가지 측면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 수준과 기술(기능수준)과 일자리의 불일치 여부, 그리고 취업 중 구직(on-the-job search) 등을 들 수 있다. 개인 및 가구에 관한 사회·경제학 정보 및 제4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된 은퇴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역시 자영업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 표본선택 과정 및 분석대상 표본

제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10,608명의 개인표본 중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2,014명으로 나타난다. 이 중 1,527명은 ‘내 사업을 한다(비임금근로)’로, 487명은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가족종사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종사자 중 56명은 18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제4차년도에 조사된 자영업 일자리는 총 2,344개로 나타난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 조사에서 자영업으로 조사되었고 제4차 조사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유형 3)이 1,758개, 지난 조사에서 자영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제4차 조사 시점 이전에 그만둔 자영업(유형 4)이 289개, 지난 조사 시점 이후에 시작하여 제4차 조사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유형 7)이 288개, 지난 조사 시점 이후에 시작하여 제4차 조사 시점 이전에 그만둔 자영업(유형 8)이 9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조사 당시 자영업을 ‘주된 일자리’로 응답한 자(1,958명) 중 표본선택 과정을 거쳐 남은 1,258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본선택 과정에 적용된 기준은 연령(20세 이상 65세 이하)(150명 제외), 창업 동기에 응답한 자(3명 제외), 업종(농림어업에 해당하는 332명을 제외), 직업력을 통해 현재 일자리번호(curjob)가 판별

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여 분석대상으로 이용가능한 표본은 1,472명으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필요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215명)을 제외하는 표본선택 과정을 거쳐 1,258명의 표본이 최종으로 분석대상 표본으로 남게 되었다²⁾.

다. 표본의 구조 및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사용되는 표본의 구조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전체 표본 중 여성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나타나고 있다.³⁾ 전체 표본 중 약 40%

<표 1> 표본의 구성

(단위: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전 체	768 [61.0]	490 [39.0]	1,258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23 (3.0)	21 (4.3)	44 (3.5)
30~39세	200 (26.0)	142 (29.0)	342 (27.2)
40~49세	330 (43.0)	194 (39.6)	524 (41.7)
50세 이상	215 (28.0)	133 (27.1)	348 (27.7)
교육 수준별			
고졸 미만	214 (27.9)	247 (50.4)	461 (36.6)
고졸 미만	367 (47.8)	180 (36.7)	547 (43.5)
대졸 미만	64 (8.3)	28 (5.7)	92 (7.3)
대졸 이상	123 (16.0)	35 (7.1)	158 (12.6)
혼인상태별			
미혼	48 (6.3)	15 (3.1)	63 (5.0)
기혼 유배우	691 (90.0)	428 (87.3)	1,119 (89.0)
기혼 무배우	29 (3.8)	47 (9.6)	76 (6.0)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 2) 본 연구에서는 개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부부가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부부가 모두 표본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 3)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1,571천 명 중 19.1%, 자영자 4,596천 명 중 32.4%, 무급가족종사자 1,856천 명 중 88.3%로 나타나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42.7%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주와 자영자만을 고려할 때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9.0%에 불과하다. 한국노동패널에 나타난 비임금근로자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임금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가족종사자 중 18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의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양 조사간에 심각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40대 연령층인 반면 20대 연령층은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별 자영업의 비중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표본의 교육 수준 별 분포를 보면, 고졸 미만이나 고졸의 비중이 40% 내외인 반면 대졸 이상의 비중은 12%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특히 여성 저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90% 정도가 기혼 유배우자이며, 미혼자나 기혼 무배우자의 비중은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은 피용자 유무와 피용자의 규모에 따라 피용자가 없는 순수자영업, 5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고용주, 5인 이상을 고용한 중규모 이상의 고용주로 구분가능하다. <표 2>는 이러한 분류에 따른 자영업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순수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중규모 이상의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상회하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수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70% 대 5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소기업 이상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5% 대 10%)은 낮게 나타나, 여성 자영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함을 알 수 있다.

<표 2> 자영업의 형태

(단위: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순수자영업	453 (59.0)	344 (70.2)	797 (63.4)
고용주(5인 미만)	235 (30.6)	122 (24.9)	357 (28.4)
고용주(5인 이상)	80 (10.4)	24 (4.9)	104 (8.3)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자영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남녀 공통 업종이 존재하는 반면 업종별 분리가 발생하는 부분도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업의 비중이 높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도소매업의 비중이 36~3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음식숙박업의 비중(27%)이, 남성의 경우는 제조업의 비중(18%)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한편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의 경우 1% 미만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12%나 되고 있다.

<표 4>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창업 동기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4) 창업 동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좋아하는 업종이어서’(28%)와 ‘실직 후 생계유지 또

는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22%)로 자영업이 순수한 개인선호형과 생계유지형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개인선호형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생계유지형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라는 선택중시형의 비중 역시 약 13%로 성별 차이가 없다. 여성의 경우 '가정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려고' 하는 가정생산병립형의 비중이 9%를 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2% 미만에 불과하다. 남성의 경우 간섭배제형('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이 8%이 반면 여성의 경우는 4%에 불과하다.

<표 3> 자영업 업종별 분포

(단위: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제조업	141 (18.4)	57 (11.6)	198 (15.7)
건설업	70 (9.1)	5 (1.0)	75 (6.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79 (36.3)	186 (38.0)	465 (37.0)
숙박 및 음식점업	67 (8.7)	130 (26.5)	197 (15.7)
운수·창고 및 통신업	88 (11.5)	5 (1.0)	93 (7.4)
금융 및 보험업	5 (0.7)	2 (0.4)	7 (0.6)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	19 (2.5)	14 (2.9)	33 (2.6)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16 (2.1)	3 (0.6)	19 (1.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업	68 (8.9)	64 (13.1)	132 (10.5)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등	15 (2.0)	24 (4.9)	39 (3.1)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표 4> 자영업 창업 동기

(단위: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53 (6.9)	39 (8.0)	92 (7.3)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249 (32.4)	102 (20.8)	351 (27.9)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61 (7.9)	21 (4.3)	82 (6.5)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103 (13.4)	65 (13.3)	168 (13.4)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13 (1.7)	45 (9.2)	58 (4.6)
-실직후 생계유지/정년퇴직 후 소일거리	162 (21.1)	112 (22.9)	274 (21.8)
-기타	127 (16.5)	106 (21.6)	233 (18.5)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 4) 창업 동기 중 '기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정보의 유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 창업 동기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 항목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채취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자영업이 지속된 기간의 분포를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지속된 자영업과 중장기 동안 지속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자영업의 경우에 단기간 지속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5> 자영업 지속기간 분포

(단위: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3년 미만	207 (27.0)	142 (29.0)	349 (27.7)
3년 이상 6년 미만	157 (20.4)	116 (23.7)	273 (21.7)
6년 이상 10년 미만	132 (17.2)	81 (16.5)	213 (16.9)
10년 이상 15년 미만	124 (16.1)	63 (12.9)	187 (14.9)
15년 이상	145 (18.9)	84 (17.1)	229 (18.2)
무응답	3 (0.4)	4 (0.8)	7 (0.6)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6>에서 보듯이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이에 더욱 치중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기 목표로는 이윤의 극대화(약 1/4), 사업의 성장(10%)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객지향적인 호평(reputation)이나 상품서비스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자영업이 상표(brand name)에 치중하지는 않는, 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

<표 6>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단위: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건전한 재무상태 확보	32 (4.2)	18 (3.7)	50 (4.0)
이윤의 극대화	169 (22.0)	126 (25.7)	295 (23.4)
장기적 안정적 사업유지	364 (47.4)	213 (43.5)	577 (45.9)
사업의 성장	84 (10.9)	45 (9.2)	129 (10.3)
고객으로부터 호평	30 (3.9)	24 (4.9)	54 (4.3)
상품 서비스 개발	11 (1.4)	4 (0.8)	15 (1.2)
없음(단기 사업유지 급함)	69 (9.0)	58 (11.8)	127 (10.1)
기타	9 (1.2)	2 (0.4)	11 (0.9)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중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사업유지가 급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기 목표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곧 중장기 목표가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로 인한 자영업 성패에서의 성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2.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기초분석

기업경영성과를 표현하는 지표는 크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과 활동성 등을 들 수 있다. 성장성지표로는 매출액, 유형자산, 총자산의 증가율을 들 수 있으며, 수익성지표로는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금융비용부담률, 차입금 평균이자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안정성지표로는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을, 생산성지표로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또는 매출액 증가율, 부가가치 증가율, 노동소득 분배율, 설비투자효율 등을 들 수 있다.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역시 이와 유사한 지표로 측정될 수 있으나 임금근로의 대안이라는 자영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자료가 기업의 재무제표 등 경영성과지표를 산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자료가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주요 변수로는 월평균 자영업 소득, 연간 매출액, 자영업 창업 당시의 자본금, 자본금 조성방식, 전체 종업원수, 주관적인 자영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이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영업주의 성과에 해당하는 월평균소득 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정한 시간당 자영업 소득, 자영업 경영성과에 해당하는 매출액과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가 주관적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⁵⁾

가. 월평균 자영업소득

자영업이 임금근로의 대안임을 고려할 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에 대응하는 개념은 자영업 소득일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자영업 소득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과 투

5)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자료와 그 이전 조사 자료를 연계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간 매출액 성장률이나 자본금 대비 매출액의 비중 등의 지표를 산출할 수는 있다.

자자본에 대한 수익(전체 또는 그 중 일부)이 합쳐진 것이나 대부분의 분석 자료에서 이 둘을 분리하여 변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⁶⁾

<표 7>은 표본특성별 월평균 자영업소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는 자영업소득의 분포를 당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42.8만 원)을 기준으로 1배 미만(저소득이라 하자), 1~2배 미만, ..., 10배 이상(고소득이라 하자)으로 나누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자영업의 4분의1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자영업 소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소득이 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표본이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중은 여성의 경우에 43%로서 남성(15%)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표 4>에서 보듯이 여성의 월평균 자영업 소득은 102.6만 원으로 남성(200.5만 원)의 약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⁸⁾ 이러한 현상은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와도 유사하다.⁹⁾ 최저임금의 10배 이상(428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남성의 경우 6%를 약간 상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소득의 분포를 교육 수준별로 보면, 저학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자영업 소득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10배 이상 고소득자의 비중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고졸 미만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은 30%를 초과하는 반면 고소득의 비중은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저소득의 비중은 15%를 하회하는 반면 고소득의 비중은 15%를 상회하고 있다.

-
- 6) 투자 가능한 자산과 인적자본을 보유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투자 자산으로부터의 수익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의(시간당) 근로소득을 엄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 소득원의 변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양 소득원의 변별이 가능한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투자수익률이 양의 값을 갖거나 투자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사람의 자영업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 7)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는 1,865 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은 421,490 원이었으며,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는 2,100 원이며 월환산액으로는 474,600 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제4차 조사는 실시되었던 시점을 감안하여 월평균 자영업소득에는 428천 원을, 시간당 자영업소득에는 1,865 원을 적용하였다.
 - 8) 월평균 자영업소득은 162만 원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년 8월)에 나타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121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167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임시직(90만 원)과 일용직(69만 원)에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안주엽, 2001) 참조.
 - 9)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년 8월)를 분석한 안주엽(2001)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87만 원)은 이 남성(150만 원)의 55.7%에 불과하다.

<표 7> 표본특성별 월평균 자영업소득의 분포

(단위: 명, %)

42.8만원 대비	1배 미만	1~2배 미만	2~3배 미만	3~4배 미만	4~5배 미만	5~10배 미만	10배 이상	전 체
전 체	324 (25.8)	145 (11.5)	190 (15.1)	176 (14.0)	193 (15.3)	171 (13.6)	59 (4.7)	1258 (100.0)
성 별								
남성	113 (14.7)	70 (9.1)	125 (16.3)	130 (16.9)	153 (19.9)	130 (16.9)	47 (6.1)	768 (100.0)
여성	211 (43.1)	75 (15.3)	65 (13.3)	46 (9.4)	40 (8.2)	41 (8.4)	12 (2.4)	490 (100.0)
교육수준별								
고졸 미만	142 (30.8)	78 (16.9)	79 (17.1)	69 (15.0)	54 (11.7)	33 (7.2)	6 (1.3)	461 (100.0)
고졸	141 (25.8)	49 (9.0)	84 (15.4)	77 (14.1)	84 (15.4)	89 (16.3)	23 (4.2)	547 (100.0)
대졸 미만	18 (19.6)	10 (10.9)	13 (14.1)	11 (12.0)	22 (23.9)	12 (13.0)	6 (6.5)	92 (100.0)
대졸 이상	23 (14.6)	8 (5.1)	14 (8.9)	19 (12.0)	33 (20.9)	37 (23.4)	24 (15.2)	158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14 (31.8)	3 (6.8)	8 (18.2)	6 (13.6)	9 (20.5)	3 (6.8)	1 (2.3)	44 (100.0)
30~39세	85 (24.9)	39 (11.4)	45 (13.2)	51 (14.9)	52 (15.2)	57 (16.7)	13 (3.8)	342 (100.0)
40~49세	125 (23.9)	56 (10.7)	84 (16.0)	71 (13.5)	85 (16.2)	75 (14.3)	28 (5.3)	524 (100.0)
50세 이상	100 (28.7)	47 (13.5)	53 (15.2)	48 (13.8)	47 (13.5)	36 (10.3)	17 (4.9)	348 (100.0)
자영업 형태별								
순수자영업	223 (28.0)	125 (15.7)	142 (17.8)	119 (14.9)	112 (14.1)	64 (8.0)	12 (1.5)	797 (100.0)
고용주(5인 미만)	76 (21.3)	17 (4.8)	39 (10.9)	50 (14.0)	63 (17.6)	84 (23.5)	28 (7.8)	357 (100.0)
고용주(5인 이상)	25 (24.0)	3 (2.9)	9 (8.7)	7 (6.7)	18 (17.3)	23 (22.1)	19 (18.3)	104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표에서 보듯이 자영업 소득의 분포를 연령대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0대와 비교할 때 저소득의 비중은 30대(25%)보다는 50대(29%)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소득의 비중 역시 30대(3.8%)보다는 50대(4.9%)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연령으로 갈수록 자영업 소득의 편차가 커짐을, 다시 말하면 연령계층 내 자영업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영업 형태별 자영업 소득의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자영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소득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순수자영업의 저소득 비중은 28%로 피용자가 있는 고용주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고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수자영업의 경우 1.5%에 불과한 반면 5인 미만 영세고용주는 7.8%, 5인 이상 중소고용주는 18%를 상회한다.

<부표 1>은 월평균 자영업 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보정한 시간당 자영업 소득의 분포를, <부표 2>는 주당 근로시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당 자영업 소득은 월평균 자영업 소득에 비해 전반적으로 편차가 더욱 커졌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60시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이의 분포를 보면 약 60%가 56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20%만이 44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¹⁰⁾

나. 월평균 매출액

자영업의 성장성지표의 하나로 매출액 증가율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에 국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표 8>은 표본 특성별 연간 매출액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이 1억 원 이상(고매출액)인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에 해당한다. 남성의 경우는 19%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¹¹⁾

고매출액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교육 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경우 38%에 이르는 반면 고졸의 경우 15%에 불과하고 고졸 미만의 경우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 수준이 자영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서 고매출액의 비중이 20%로 가장 높으나 1인당 매출액으로 보면 오히려 30대에서 가장 높게(20%)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30대의 경우는 비교적 소규모의 자영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을 운영하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0) 이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의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1999, 2000, 2001)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분포를 비교할 수 있다.

11) 그러나 <부표 3>의 자영업의 1인당 매출액을 보면, 남녀 자영업자의 5천만 원 이상 고매출의 비중은 18%와 14%로 성별 차이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남성 자영업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을 반영한다.

<표 8> 표본 특성별 연간 매출액의 분포

(단위: 명, %)

	~2천만	~4천만	~6천만	~8천만	~1억	1~2억	2억 초과	전 체
전 체	357 (28.4)	387 (30.8)	148 (11.8)	106 (8.4)	60 (4.8)	104 (8.3)	96 (7.6)	1258 (100.0)
성 별								
남 성	185 (24.1)	242 (31.5)	91 (11.8)	63 (8.2)	39 (5.1)	76 (9.9)	72 (9.4)	768 (100.0)
여 성	172 (35.1)	145 (29.6)	57 (11.6)	43 (8.8)	21 (4.3)	28 (5.7)	24 (4.9)	490 (100.0)
교육수준별								
고졸미만	169 (36.7)	162 (35.1)	53 (11.5)	30 (6.5)	15 (3.3)	19 (4.1)	13 (2.8)	461 (100.0)
고졸	138 (25.2)	178 (32.5)	69 (12.6)	47 (8.6)	31 (5.7)	38 (6.9)	46 (8.4)	547 (100.0)
대졸미만	23 (25.0)	18 (19.6)	11 (12.0)	11 (12.0)	5 (5.4)	17 (18.5)	7 (7.6)	92 (100.0)
대졸이상	27 (17.1)	29 (18.4)	15 (9.5)	18 (11.4)	9 (5.7)	30 (19.0)	30 (19.0)	158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14 (31.8)	15 (34.1)	4 (9.1)	5 (11.4)	3 (6.8)	2 (4.5)	1 (2.3)	44 (100.0)
30~39세	94 (27.5)	103 (30.1)	45 (13.2)	28 (8.2)	17 (5.0)	34 (9.9)	21 (6.1)	342 (100.0)
40~49세	136 (26.0)	163 (31.1)	54 (10.3)	38 (7.3)	27 (5.2)	51 (9.7)	55 (10.5)	524 (100.0)
50세 이상	113 (32.5)	106 (30.5)	45 (12.9)	35 (10.1)	13 (3.7)	17 (4.9)	19 (5.5)	348 (100.0)
자영업 형태별								
순수자영업	296 (37.1)	291 (36.5)	88 (11.0)	52 (6.5)	29 (3.6)	30 (3.8)	11 (1.4)	797 (100.0)
고용주(5인 미만)	52 (14.6)	82 (23.0)	51 (14.3)	52 (14.6)	26 (7.3)	49 (13.7)	45 (12.6)	357 (100.0)
고용주(5인 이상)	9 (8.7)	14 (13.5)	9 (8.7)	2 (1.9)	5 (4.8)	25 (24.0)	40 (38.5)	104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고매출액 자영업의 비중을 자영업 형태별로 보면, 순수자영업은 5%만이 고매출액 자영업인 반면 5인 미만 고용주는 26%에 이르고 5인 이상 고용주의 경우는 6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규모별 매출액의 격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부표 3>에서 보듯이 1인당 매출액의 보면, 1억원 이상의 비중은 모든 자영업 형태에서 5% 내외로 유사한 수준인 반면 5천만~1억 원의 비중은 고용주의 경우 5~6%에서 피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순수자영업의 경우는 1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간 매출액은 커지나 종업원의 한계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조사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업체에 대한 ___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답항으로는 ‘① 매우 성공적이다 ② 성공적인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고전하는 편이다 ⑤ 매우 고전하고 있다’의 5단계 응답(Likert scale)이다.¹²⁾ <표 9>는 자영업의 주관적 평가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자영업의 성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자영업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¹³⁾ ‘성공적인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5% 정도이다. 23%는 ‘고전하고 있는 편’이고 10%는 ‘매우 고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서 남녀간 성별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보듯이 월평균 자영업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사업체가 성공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소득이 43만~86만 원인 경우에 4.8%가 성공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428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8%가 ‘성공적인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⁴⁾ 매출액과 주관적 평가도 유사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과 주관적 평가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표본 중 4명은 ⑨ 무응답자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개인 공통 질문에서는 8가지 관련항목 및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 설문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만족도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13) 이들은 40대 남성으로 모두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14)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자영업소득을 갖는 남성은 2.7%만이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10.9%가 만족하고 있다. 이는 자료의 구축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자영업의 경우 한쪽(주로 남편)은 자영업자, 다른 한 쪽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되고, 소득은 한쪽 일방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Eoansd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9〉 사업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

주관적 평가	1	2	3	4	5	무응답
전 체	0.2	15.5	51.0	23.3	9.7	0.3
남 성	0.4	15.6	49.9	24.3	9.4	0.4
여 성	0.0	15.3	52.7	21.6	10.2	0.2
자영업 형태별						
순수자영업	0.3	12.7	48.2	26.7	12.0	0.1
고용주(5인 미만)	0.0	17.1	57.4	18.2	6.7	0.6
고용주(5인 이상)	1.0	31.7	50.0	14.4	1.9	1.0
자영업소득(최저임금 대비)						
1배 미만	0.3	8.0	40.7	29.0	21.0	0.9
1~2배 미만	0.0	4.8	42.1	33.1	20.0	0.0
2~3배 미만	0.0	7.4	50.5	34.7	7.4	0.0
3~4배 미만	0.0	12.5	65.9	18.8	2.8	0.0
4~5배 미만	0.0	22.8	60.6	14.5	2.1	0.0
5~10배 미만	1.2	30.4	54.4	12.3	1.2	0.6
10배 이상	0.0	50.8	44.1	5.1	0.0	0.0
연간 매출액						
~2천만 원	0.6	7.3	41.7	31.4	18.8	0.3
~4천만 원	0.0	11.9	56.3	23.5	8.0	0.3
~6천만 원	0.0	16.9	58.8	19.6	4.7	0.0
~8천만 원	0.0	12.3	58.5	19.8	8.5	0.9
~1억 원	0.0	33.3	53.3	11.7	1.7	0.0
1~2억 원	0.0	21.2	48.1	25.0	4.8	1.0
2억원 초과	1.0	44.8	44.8	7.3	2.1	0.0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Ⅲ. 실증분석: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본 연구에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를 월평균 자영업 소득(부가적으로 시간당 자영업 소득), 연간 매출액(또는 1인당 매출액), 그리고 주관적 평가의 세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앞의 두 지표에 대해서는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method)을 실시하고 마지막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서열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① 일반적인 인적자본의 지표로서 교육연한, 연령, 이전

직장에서의 자영업 또는 전문직 경험과 성별 가변수와의 교차항(interaction effects)과 혼인상태(미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② 사업체 특성으로서 창업 당시 자본금, 창업 후 자영업 지속기간, 자영업의 유형, 자영업 소재지 및 자영업 업종이 포함되고, ③ 7 가지 자영업 창업 동기, ④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⑤ 8 가지 항목의 창업훈련 여부가 사용된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명칭과 정의 및 기초통계가 <부표 4>에 제시되어 있다.¹⁵⁾

1. 자영업 소득의 결정요인

자영업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특성(남녀의 학력 수준, 남녀의 연령대, 결혼상태)과 사업체 관련 특성(현재 사업체의 지속기간, 피용자의 여부 및 수를 고려한 자영업 형태, 사업체 위치)와 사업체 시작 동기를 포함한다. 둘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서 포함된 변수에 더하여 자영업의 업종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업종 가변수를 포함한다.¹⁶⁾ <표 10>의 추정 결과에서 보듯이 두 모형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업종이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임대사업(-)과 정보처리업(+)¹⁷⁾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두 모형에 공통되는 변수들의 추정치 및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모형이 상당히 robust함을 알 수 있다. 모형(2)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연한이 자영업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을 알 수 있다. 자영업 소득에서의 교육수익률은 여성이 7.2%로 남성(4.9%)보다 높게 나타나며 유의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임금근로자의 성별 교육수익률과는 정반대인 것이다.¹⁷⁾ 이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취업 자체뿐 아니라 임금에서 교육이 평가받는 가격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이 자영업에 속할 경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측면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령이 자영업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40대 남성 자영업을 기준집단(reference

-
- 15) 자영업의 성과에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은 가족 또는 친척간의 시간이나 금전적인 이전(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수 없어 총 근로자의 수에 따른 사업체의 크기로 가족 또는 친척의 도움 여부를 반영하였다.
 - 16)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업종소분류(3-digit)까지 분류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농림어업은 제외하였으며 광공업(광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제조업)을 기준 업종으로 하고 서비스업종을 대분류 수준보다 다소 세분류하였다.
 - 17) 안주엽(2001b, 82쪽의 <표 6>)은 남성의 교육수익률은 3.6%, 여성은 2.5%로 교육에 대한 노동시장의 평가에서 성별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0〉 자영업소득(로그, 월평균)의 추정

	모형 (1)	모형 (2)
Intercept	2.988(0.444)***	3.135(0.465)***
남성*hgc	0.054(0.026)**	0.049(0.026)*
여성*hgc	0.077(0.032)**	0.072(0.033)**
남성*age2	-0.674(0.458)	-0.653(0.458)
남성*age3	0.047(0.187)	0.073(0.188)
남성*age5	-0.138(0.183)	-0.159(0.183)
여성*age2	-0.983(0.696)	-1.107(0.702)
여성*age3	-1.728(0.524)***	-1.701(0.528)***
여성*age4	-1.554(0.474)***	-1.517(0.478)***
여성*age5	-1.402(0.438)***	-1.357(0.441)***
SINGLE	-0.238(0.284)	-0.231(0.285)
NOSPOUSE	0.388(0.248)	0.345(0.248)
DURATION	0.002(0.008)	0.003(0.008)
emperS	0.205(0.135)	0.175(0.138)
emperB	0.022(0.218)	-0.065(0.223)
FAVOR	0.705(0.242)***	0.700(0.243)***
CONTROL	0.553(0.310)*	0.564(0.312)*
FREE	0.199(0.267)	0.216(0.269)
CLOSE	0.139(0.345)	0.222(0.345)
RETIRED	0.388(0.252)	0.409(0.252)
OTHREA	-0.017(0.253)	0.002(0.254)
SEOUL	0.657(0.227)***	0.649(0.227)***
Reg1	0.520(0.228)**	0.521(0.229)**
Reg3	0.400(0.275)	0.448(0.275)
Reg4	0.334(0.220)	0.343(0.220)
INDCON		-0.017(0.276)
INDSAL		-0.278(0.175)
INDRES		-0.115(0.215)
INDTRA		0.179(0.261)
INDFIN		0.656(0.777)
INDEST		-0.764(0.383)**
INDITS		0.880(0.485)*
INDLEA		-0.152(0.232)
indppp		0.377(0.376)
R ²	0.1519	0.1632
조정된 R ²	0.1347	0.14
F-value	8.83***	7.02***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group)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여성 자영업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크기도 135%에서 170%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는 통상적인 연구에서 보듯이 자영업 결정요인에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나 일단 자영업을 시작하였을 때 자영업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⁸⁾

자영업 지속기간이나 자영업 형태가 자영업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업체 소재지는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 또는 충청권에 위치한 자영업과 비교할 때, 서울이나 경기·강원권에 위치한 자영업의 소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 산출(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측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를 시작한 동기는 자영업자의 동기유발과 관련되어 자영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영업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형(‘부모 또는 친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서’)과 비교할 때, 모든 동기유형이 자영업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선호형(‘좋아하는 업종이어서’)과 간섭배제형(‘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2. 자영업 소득에서의 세 가지 가설의 검정

여기서는 개인적인 특성 또는 사업체 관련 특성을 고려한 기존의 모형에 더하여 추가적인 세 가지 요인이 자영업 소득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가설검정하고자 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요인으로는 이전 직장 경험(자영업 또는 전문직 임금 근로),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자영업 창업 당시 각종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이수 여부이다. 자영업 경험은 노하우의 축적을 통하여, 전문직 임금근로의 경험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social network 등의 social capital)의 축적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¹⁹⁾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는 목표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동기유발을 통하여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⁰⁾ 창업훈련프로그램은 기업이 정신 및 자

18)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변수인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나 가구의 현황(유형별 소득이나 자녀의 수 및 연령구조 등) 등을 고려한 모형을 추정하였으나 예상대로 이러한 요인들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Quinn, Burkhauser, and Myers(1990)는 이전직장의 경험, 특히 이전직장에서 자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0) 기업이 정신이 자영업의 운영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체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경

영업 관련 기술의 습득을 매개로 ‘자영업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요인은 복수의 가변수로 이루어지므로 가설검정할 모형은

$$\ln(\text{자영업 소득}) = X\beta + H^i\delta + \varepsilon,$$

X: 모형 (2)에 포함된 독립변수

β : 관련된 추정되어질 계수

H^i : 가설검정대상인 추가요인

δ : 이와 관련된 추정되어질 계수

이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각각

$$H_0: \delta^i = 0 \quad \text{vs.} \quad H_a: \delta^i \neq 0$$

로 설정되며, 이를 위한 검정통계량은 F분포함수(F distribution)를 취한다.

세 가지 가설검정에 대한 가설검정의 결과가 <표 11>에 보여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전 직장의 경험과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반면,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이수는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 직장의 경험은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추가적인 세 가지 요인 중 두 가지를 포함한 최종 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른 경제적 성과의 추정 결과와 함께 <표 12>에 보여지고 있다.

이전에 자영업 경험은 자영업 소득에 남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²¹⁾ 한편 전문직 임금근로의 경험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전문직 종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의 운영성과에 전문적인 경험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윤극대화 또는 사업의 안정성, 안정적인 사업유지, 좋은 상품의 개발로 고객의 호평을 중장기 목표 각각이 자영업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중 고객지향형 목표가 자영업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이윤지향형이나 안정지향

우와 비교할 때 이윤극대화, 안정적 사업유지, 좋은 상품의 개발로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21) 유사 업종일 경우에는 긍정적이나 전혀 다른 업종일 경우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결과는 부정적이다. 자영업을 그만둔 후 다시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자본금이 줄어들거나 자영업 규모가 축소될 경우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보다 정밀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가능할 것이다.

형보다 더 크고 유의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체의 목표를 갖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창업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세 가지 가설검정

	가설 (1) 이전 직장 경험	가설 (2) 증장기 목표	가설 (3) 창업훈련프로그램
Intercept	3.409(0.478)***	2.810(0.488)***	3.128(0.466)***
남성*hgc	0.041(0.027)	0.048(0.026)*	0.053(0.026)**
여성*hgc	0.057(0.033)*	0.073(0.033)**	0.073(0.033)**
남성*age2	-0.656(0.458)	-0.684(0.458)	-0.670(0.460)
남성*age3	0.076(0.187)	0.071(0.187)	0.055(0.188)
남성*age5	-0.105(0.184)	-0.156(0.183)	-0.151(0.184)
여성*age2	-1.104(0.709)	-1.136(0.702)	-1.050(0.703)
여성*age3	-1.707(0.542)***	-1.753(0.528)***	-1.674(0.528)***
여성*age4	-1.482(0.497)***	-1.528(0.477)***	-1.479(0.478)***
여성*age5	-1.339(0.460)***	-1.359(0.441)***	-1.315(0.442)***
남성*ExpSelf	-0.308(0.151)**		
남성*ExpProf	0.348(0.489)		
여성*ExpSelf	-0.334(0.192)*		
여성*ExpProf	1.487(0.570)***		
GOALMAX		0.441(0.203)**	
GOALSTB		0.376(0.194)*	
GOALENT		0.701(0.304)**	
TRAIN1			0.164(0.556)
TRAIN2			0.108(0.432)
TRAIN3			0.993(0.495)**
TRAIN4			0.101(0.432)
TRAIN5			0.067(0.378)
TRAIN6			-1.260(0.530)**
TRAIN7			-0.258(0.497)
TRAIN8			-0.187(0.212)
R ²	0.173	0.1678	0.1705
조정된 R ²	0.1473	0.1426	0.1418
F-value	6.71***	6.65***	5.95***
가설검정통계량	3.62***	2.24*	0.35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10>의 모형 (2)의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였으나 결과표에서는 제외.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전반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²²⁾ 창업훈련프로그램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창업훈련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본인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²³⁾ ‘학원 등 영리단체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자영업 소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본인 사업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의 역할과 성과를 확인시켜 주며 정부의 창업훈련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지표의 결정요인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들(월평균 자영업 소득, 시간당 자영업 소득, 매출액, 1인당 매출액)을 결정하는 요인(모두 동일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음)의 추정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시간당 자영업 소득은 월평균 자영업 소득을 주당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계산된 것이며,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을 근로자수(자영업자 본인, 피고용인, 가족종사자 포함)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자영업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연간 매출액 또는 1인당 매출액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러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전에 시간당 자영업 소득의 결정요인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소득의 추정과는 달리 결정요인이 미치는 효과의 방향이나 유의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여성의 교육연한은 남성과는 달리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 모든 연령층 가변수 추정치가 양(+)의 값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기혼 무배우자의 시간당 자영업 소득은 기혼 유배우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이 거의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22) 이는 창업훈련프로그램이 창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자영업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창업 후 자영업을 유지시키고 자영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 경우에 창업훈련프로그램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의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더 이상 자세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23) 이는 프로그램 자체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편 그러한 프로그램을 선택한 자영업 창업 준비자의 속성에 기인하는 표본선택 편(sample selectivity)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 무배우자는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집단이므로 상대적으로 고연령이며, 고연령 세대(cohort)는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연한, 연령, 혼인상태 세 변수가 미치는 효과가 서로 얽혀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임금근

<표 12> 경제적 성과지표의 결정요인

	월평균소득	시간당 소득	연간 매출액	1인당 매출액
Intercept	3.096(0.501)***	-3.184(0.348)***	3.055(2.020)	3.666(1.926)*
남성*hgc	0.041(0.027)	0.041(0.018)**	0.032(0.020)	0.022(0.019)
여성*hgc	0.058(0.033)*	0.001(0.023)	0.028(0.025)	0.031(0.024)
남성*age2	-0.684(0.458)	0.475(0.318)	-0.092(0.325)	-0.057(0.310)
남성*age3	0.074(0.187)	-0.152(0.130)	0.015(0.135)	-0.001(0.129)
남성*age5	-0.104(0.184)	0.043(0.128)	-0.215(0.135)	-0.250(0.129)*
여성*age2	-1.130(0.709)	0.702(0.492)	-0.153(0.520)	-0.360(0.495)
여성*age3	-1.755(0.542)***	1.045(0.376)***	-0.266(0.398)	-0.446(0.380)
여성*age4	-1.493(0.497)***	0.838(0.345)**	-0.283(0.364)	-0.418(0.347)
여성*age5	-1.342(0.460)***	0.832(0.319)***	-0.117(0.336)	-0.246(0.320)
SINGLE	-0.376(0.287)	-0.112(0.199)	0.186(0.032)***	0.164(0.030)***
NOSPOUSE	0.362(0.248)	-0.583(0.172)***	0.234(0.302)	0.140(0.288)
DURATION	0.000(0.008)	0.012(0.006)**	0.025(0.006)***	0.022(0.006)***
emperS	0.168(0.138)	0.477(0.096)***	0.714(0.103)***	-0.667(0.098)***
emperB	-0.110(0.223)	0.809(0.155)***	1.403(0.167)***	-0.963(0.159)***
FAVOR	0.616(0.243)**	-0.318(0.169)*	0.024(0.020)	0.020(0.019)
CONTROL	0.484(0.312)	-0.280(0.216)	0.007(0.020)	0.005(0.019)
FREE	0.170(0.269)	-0.109(0.187)	0.024(0.020)	0.021(0.019)
CLOSE	0.218(0.344)	-0.318(0.239)	0.026(0.020)	0.022(0.019)
RETIRED	0.365(0.252)	-0.226(0.175)	0.019(0.020)	0.017(0.019)
OTHREA	-0.028(0.253)	0.162(0.176)	0.020(0.020)	0.016(0.019)
남성*ExpSelf	-0.295(0.151)*	0.263(0.105)**	0.032(0.111)	0.024(0.105)
남성*ExpProf	0.359(0.491)	0.296(0.341)	0.425(0.362)	0.481(0.345)
여성*ExpSelf	-0.319(0.192)*	0.473(0.134)***	-0.049(0.142)	-0.032(0.135)
여성*ExpProf	1.462(0.569)**	-0.061(0.396)	0.587(0.417)	0.625(0.398)
GOALMAX	0.416(0.203)**	0.159(0.141)	0.376(0.150)**	0.330(0.143)**
GOALSTB	0.348(0.194)*	0.224(0.135)*	0.577(0.143)***	0.534(0.136)***
GOALENT	0.657(0.303)**	-0.040(0.211)	0.255(0.222)	0.216(0.212)
R ²	0.1771	0.1209	0.2452	0.1664
조정된 R ²	0.1493	0.0912	0.2198	0.1383
F-value	6.38***	4.08 ***	9.64***	5.92***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업종가변수 및 지역가변수의 추정치는 결과표에서는 제외.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로자의 근속기간에 대응하는 개념인 자영업 지속기간이 미치는 효과는 연간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⁴⁾

또한 자영업 유형별로 시간당 자영업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용인이 없는 순수 자영업과 비교할 때 피용자가 있는 고용주의 시간당 자영업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규모가 커질수록 효과의 크기도 커진다. 남녀 모두 전문직 경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반면 자영업 경험은 긍정적인 효과로 반전되고 있다.

동일한 결정요인들이 연간 매출액 또는 1인당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자영업 소득의 수준에 유의한 효과를 갖는 남녀의 교육 수준, 여성의 연령집단 가변수, 자영업 창업 동기, 이전 직장의 경험은 연간 매출액 수준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혼인상태(미혼인 경우 16~18%의 긍정적 효과)와 자영업의 형태(피용자가 있는 경우 긍정적 효과), 사업체 소재지(인천·경기·강원권이나 서울인 경우 30% 내지 20%의 긍정적 효과)와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성장지향형과 안정지향형 모두 긍정적 효과)는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용자가 있거나 피용자가 증가하면 연간 매출액은 증가하나 1인당 매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업원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는 구간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영업 지속기간이 경과할수록 연간 매출액이나 1인당 매출액이 매년 2.2~2.5%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지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자영업 소득의 경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장기 목표가 없는 자영업과 비교할 때 안정지향형 자영업의 연간 매출액(1인당 매출액)은 58%(53%)나 높고, 성장지향형 자영업은 38%(3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목표가 자영업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업종별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업, 공공·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자영업의 연간 매출액 수준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1인당 매출액의 경우도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4. 자영업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자영업주가 자영업의 성과에 대해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24) 안주엽(2001b, 82쪽의 <표 6>)은 근속기간에 따른 시간당 임금의 상승률은 3.1%로 보고하고 있다.

평가 수준에 대한 5점 척도의 항목을 서열화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표 13>에는 자영업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추정하는 5개의 모형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열은 기본 모형으로 월평균 자영업 소득, 연간 매출액, 주당 근로시간, 창업 당시의 자본금, 자영업 지속기간, 자영업 형태 등 경제적 성과 관련지표와 남녀의 교육 수준, 연령대 가변수, 결혼상태 등 개인적인 특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열부터 네 번째 열까지는 자영업 창업 동기,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이전 직장의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 여부가 각각 추가로 고려될 때 이들이 모형에 유익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가설검정하고 있다. 가설검정 절차를 개략하자. 제약되지 않은 모형(unrestricted model)을

$$S = Za + W\gamma + v,$$

여기서 S: 주관적 평가(1, 2, 3, 4, 또는 5)

Z: 기본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a: 이와 관련된 추정되어질 계수

W: 추가하고자 하는 변수의 벡터

γ : 이와 관련된 계수

v: 오차항

이라 설정하고, 귀무가설(추가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모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과 대립가설을

$$H_0: \gamma = 0 \quad \text{vs.} \quad H_a: \gamma \neq 0$$

이라 하면, 귀무가설하에서 제약된 모형(restricted model)은

$$S = Za + v,$$

이 되며, 각 모형에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부터 최적화된 로그우도함수의 값(Lr*와 Lu*)이 구해지며, 우도비검정통계량(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은

$$LR = -2 \log \lambda = -2 (Lr^* - Lu^*) \sim \chi^2(r), \quad r \text{은 자유도(=제약의 수)}$$

으로 정의되며, 이로부터 귀무가설의 기각 또는 채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마지막 행은 각 가설검정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표 13> 자영업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기본 모형	세 가지 가설검정			최종 모형
		창업 동기	증장기 목표	이전 직장 경험	
Intercept	-9.929 (0.887)***	-10.523 (0.931)***	-10.665 (0.900)***	-10.058 (0.896)***	-11.121 (0.942)***
Intercept2	-5.437 (0.669)***	-6.014 (0.725)***	-6.159 (0.685)***	-5.522 (0.678)***	-6.602 (0.738)***
Intercept3	-2.711 (0.655)***	-3.262 (0.710)***	-3.382 (0.669)***	-2.785 (0.664)***	-3.804 (0.722)***
Intercept4	-1.010 (0.653)	-1.543 (0.707)**	-1.649 (0.665)**	-1.087 (0.662)	-2.055 (0.718)***
Learn	0.280 (0.028)***	0.281 (0.029)***	0.275 (0.029)***	0.277 (0.029)***	0.277 (0.029)***
Lsale	0.193 (0.038)***	0.198 (0.038)***	0.186 (0.038)***	0.191 (0.038)***	0.191 (0.038)***
Lhour	-0.045 (0.124)	-0.025 (0.125)	0.007 (0.125)	-0.024 (0.125)	0.019 (0.126)
Lstmon	-0.021 (0.041)	-0.016 (0.042)	-0.036 (0.041)	-0.025 (0.041)	-0.030 (0.042)
Duration	-0.006 (0.008)	-0.003 (0.008)	-0.005 (0.008)	-0.005 (0.008)	-0.003 (0.008)
emperS	0.257 (0.133)*	0.218 (0.135)	0.251 (0.133)*	0.267 (0.133)**	0.216 (0.135)
emperB	0.913 (0.222)***	0.928 (0.223)***	0.923 (0.222)***	0.913 (0.223)***	0.936 (0.223)***
남성*hgc	0.065 (0.025)***	0.063 (0.025)**	0.064 (0.025)**	0.066 (0.026)***	0.061 (0.025)**
여성*hgc	0.038 (0.031)	0.030 (0.031)	0.040 (0.031)	0.026 (0.032)	0.034 (0.031)
남성*age2	1.030 (0.439)**	1.067 (0.441)**	1.104 (0.441)**	1.066 (0.441)**	1.136 (0.443)**
남성*age3	0.302 (0.179)*	0.334 (0.180)*	0.321 (0.180)*	0.311 (0.180)*	0.353 (0.181)*
남성*age5	0.176 (0.174)	0.170 (0.176)	0.174 (0.175)	0.162 (0.176)	0.170 (0.176)
여성*age2	1.369 (0.662)**	1.580 (0.666)**	1.320 (0.665)**	1.472 (0.673)**	1.507 (0.669)**
여성*age3	1.351 (0.501)***	1.462 (0.504)***	1.277 (0.504)**	1.431 (0.518)***	1.361 (0.506)***
여성*age4	1.007 (0.451)**	1.104 (0.454)**	0.987 (0.453)**	1.077 (0.472)**	1.054 (0.456)**
여성*age5	1.051 (0.417)**	1.145 (0.420)***	1.041 (0.419)**	1.114 (0.437)**	1.113 (0.421)***
SINGLE	-0.261 (0.272)	-0.343 (0.273)	-0.322 (0.272)	-0.294 (0.275)	-0.397 (0.273)
NoSpouse	-0.477 (0.233)**	-0.497 (0.234)**	-0.415 (0.235)*	-0.492 (0.233)**	-0.438 (0.236)*
FAVOR		0.533 (0.234)**			0.422 (0.235)*
CONTROL		-0.153 (0.296)			-0.274 (0.298)
FREE		0.611 (0.258)**			0.494 (0.260)*
CLOSE		-0.213 (0.328)			-0.176 (0.330)
RETIRED		0.372 (0.243)			0.320 (0.245)
OTHREA		0.509 (0.243)**			0.441 (0.244)*
GoalMAX			0.560 (0.191)***		0.545 (0.192)***
GoalSTB			0.791 (0.184)***		0.763 (0.186)***
GoalENT			1.505 (0.291)***		1.444 (0.293)***
남성ExpSelf				0.079 (0.144)	
남성ExpProf				0.081 (0.469)	
여성ExpSelf				0.169 (0.185)	
여성ExpProf				1.307 (0.577)**	
Prop.Odd	79.75**	102.33**	89.44**	93.68**	114.12**
Wald	221.10***	238.97***	248.68***	225.03***	263.06***
LR Stat.		20.41***	31.11***	6.22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Prop.Odd는 Propotional odds 가정에 대한 score test 검정통계량(χ^2 분포).

Wald는 상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0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통계량(χ^2 분포).

LR Stat은 추가된 특정변수들의 계수의 값이 0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통계량(χ^2 분포).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창업 동기와 증장기 목표는 기본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에 추가되었을 때 이들이 자영업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반면 이전 직장에서의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 경험은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가설검정의 결과에 따른 최종 모형이 마지막 열에 나타나 있다. 모형의 변화에 따르는 계수의 **robustness**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되 최종 모형을 중심으로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로 하자. 먼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와 주관적 평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자영업 소득과 연간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²⁵⁾ 반면 주당 근로시간은 모형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즉, 자영업의 경우 임금근로와는 달리 근로시간의 장단이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 형태를 보면, 피용자가 있는 고용주의 경우 긍정적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5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에 주관적인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초기 자본금이나 자영업 지속기간은 주관적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적 특성이 주관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연령층에 따른 평가의 차이는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40대와 비교할 때 남성 20대와 30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 유배우자와 비교할 때 기혼 무배우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미혼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 창업 동기가 주관적 평가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개인선호형과 자유선택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생계유지형 역시 긍정적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반면에 간섭배제형이나 가정생산병립형의 경우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자영업 증장기 목표는 목표의 유형에 관계없이 목표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자영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침을 알 수 있다. 성장지향형

25) 두 변수의 긍정적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odds ratio는 각각 1.32와 1.21로 높게 나타난다.

보다는 안정지향형이, 이보다는 고객지향형이 긍정적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IV. 결 론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 전반적으로는 일천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중립적일 것이다. 몇몇 연구의 대부분은 자영업 선택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임금근로의 대안으로서) 비임금근로로서의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또는 유사한 특성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는가를 연구하는 데 치중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개인의 자영업 창업 과정, 자영업의 성장 과정,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 분석에서 무엇보다 먼저 “왜 자영업을 선택 또는 창업하는가?”라는 의문이 앞설 것이다. 임금근로의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자영업 자체를 선호하는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평생근로(lifetime work)의 한 과정으로 자영업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자영업 창업 동기와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창업 과정에서 이전 직장들에서의 각종 경험 및 민간 및 공공이 제공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상담이 갖는 역할은 무엇인가?” 등 창업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자영업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영업의 성과를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일 것이다. “자영업의 성장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창업 당시의 환경과 현재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자영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정책이 자영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자영업의 성과지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측정하고 분석할 것인가?” 등 자영업의 성장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문 역시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왜 자영업을 그만두는가?”는 자영업의 소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더 나은 대안—예를 들면, 은퇴나 임금근로—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등이 주요한 관심사일 것이며, 이러한 관심은 “자영업의 소

멸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영업 소멸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미시적인 측면뿐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 과도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을 그만둔 개인까지 포함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력을 이용하여 자영업으로의 이동 및 이탈을 분석하는 연구가 패널자료가 시간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생존 기간은 이탈을 반영하는 한 단면이므로 생존 기간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에 대한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연구가 일천한 것은 자영업 분석에 핵심되는 기초 자료가 부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자영업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인 자료로는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일 것이다. 매월 자료를 연결할 경우 패널자료로 구축이 가능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종사상 지위’ 설문항목에서 임금 근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비임금근로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으로써 자영업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기초적인 인적 특성과 종사상지위(업종과 직종 및 사업체 규모도 제공)만 제공하므로 인적 특성이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 가능할 뿐 진입이나 탈출의 원인이나 환경이 미치는 요인, 자영업의 성장 과정이나 자영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외에 일시적인 각종 실태조사 자료가 존재하긴 하나 본격적인 자영업 연구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매년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제4차년도인 2001년 조사에서 ‘일자리 유형’과 ‘개인공통설문’에서 자영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자영업 분석에 필수불가결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점은 자영업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제4차 조사 중 자영업에 해당하는 일자리 유형 3, 4, 7, 8과 개인공통 및 직업력에 나타난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 언급한 자영업 연구 중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와 이에 대한 자영업자의 주관적 평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일자리에서 자영업 및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은 자영업 소득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반면 매출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는 자영업 소득과 연간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셋째, 창업 당시 창업훈련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다만, 영리단체가 제공하는 훈련프로그램이 자영업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나

소속된 사업체가 제공하는 훈련프로그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영업주 개인의 인적 특성은 자영업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출액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사업체의 특성에 의존한다. 다섯째,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와 자영업주의 주관적 평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자영업의 중장기 목표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영업주가 상대적으로 사업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부수적인 목적 중 하나는 자영업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이나 연구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한국노동패널」 제4차 조사가 본격적으로 자영업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의 출현은 이미 언급한 자영업의 생성, 성장 및 소멸 과정을 연구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료 구축의 시작과 더불어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설문항을 개발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와 연구, 그리고 정책시사점이 풍부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2000): 81-107.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2000): 55-80.
- 류재우·최효영,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1호(1999): 109-140.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2000): 109-132.
- _____, 「정규근로와 비임금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제24권 1호(2001): 67-96.
- 안주엽 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한국노동연구원, 『KLI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_____, 『KLI 노동통계 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2.

- Delage, B. “Results from the Survey of Self-Employment in Canada”. Applied Research Bran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2002.
- Quinn, J. F., Burkhauser, R.V., and Myers, D.A. “Passing the Torch: The Influence of Economic Incentives on Work and Retirement”.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0.

<부표 1> 표본 특성별 시간당 자영업소득의 분포

(단위: 명, %)

1,865원 대비	1배 미만	1~2배 미만	2~3배 미만	3~4배 미만	4~5배 미만	5~10배 미만	10배 이상	전 체
전 체	340 (27.0)	183 (14.5)	208 (16.5)	154 (12.2)	114 (9.1)	167 (13.3)	92 (7.3)	1258 (100.0)
성 별								
남성	117 (15.2)	99 (12.9)	146 (19.0)	119 (15.5)	87 (11.3)	134 (17.4)	66 (8.6)	768 (100.0)
여성	223 (45.5)	84 (17.1)	62 (12.7)	35 (7.1)	27 (5.5)	33 (6.7)	26 (5.3)	49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미만	151 (32.8)	101 (21.9)	74 (16.1)	56 (12.1)	29 (6.3)	32 (6.9)	18 (3.9)	461 (100.0)
고졸	148 (27.1)	64 (11.7)	100 (18.3)	66 (12.1)	52 (9.5)	74 (13.5)	43 (7.9)	547 (100.0)
대졸 미만	18 (19.6)	8 (8.7)	15 (16.3)	12 (13.0)	15 (16.3)	20 (21.7)	4 (4.3)	92 (100.0)
대졸 이상	23 (14.6)	10 (6.3)	19 (12.0)	20 (12.7)	18 (11.4)	41 (25.9)	27 (17.1)	158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14 (31.8)	4 (9.1)	9 (20.5)	3 (6.8)	6 (13.6)	7 (15.9)	1 (2.3)	44 (100.0)
30~39세	90 (26.3)	43 (12.6)	63 (18.4)	47 (13.7)	37 (10.8)	44 (12.9)	18 (5.3)	342 (100.0)
40~49세	138 (26.3)	72 (13.7)	76 (14.5)	72 (13.7)	44 (8.4)	74 (14.1)	48 (9.2)	524 (100.0)
50세 이상	98 (28.2)	64 (18.4)	60 (17.2)	32 (9.2)	27 (7.8)	42 (12.1)	25 (7.2)	348 (100.0)
자영업 형태별								
순수자영업	235 (29.5)	153 (19.2)	140 (17.6)	111 (13.9)	64 (8.0)	67 (8.4)	27 (3.4)	797 (100.0)
고용주(5인 미만)	80 (22.4)	26 (7.3)	52 (14.6)	41 (11.5)	40 (11.2)	72 (20.2)	46 (12.9)	357 (100.0)
고용주(5인 이상)	25 (24.0)	4 (3.8)	16 (15.4)	2 (1.9)	10 (9.6)	28 (26.9)	19 (18.3)	104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부표 2〉 표본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의 분포

(단위: 명, %)

시간	~18	19~30	31~44	45~56	57~72	73~96	97~	전 체
전 체	91 (7.2)	60 (4.8)	116 (9.2)	253 (20.1)	443 (35.2)	228 (18.1)	67 (5.3)	1258 (100.0)
성 별								
남성	51 (6.6)	29 (3.8)	68 (8.9)	179 (23.3)	274 (35.7)	131 (17.1)	36 (4.7)	768 (100.0)
여성	40 (8.2)	31 (6.3)	48 (9.8)	74 (15.1)	169 (34.5)	97 (19.8)	31 (6.3)	49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미만	32 (6.9)	24 (5.2)	40 (8.7)	75 (16.3)	171 (37.1)	90 (19.5)	29 (6.3)	461 (100.0)
고졸	42 (7.7)	22 (4.0)	46 (8.4)	120 (21.9)	184 (33.6)	102 (18.6)	31 (5.7)	547 (100.0)
대졸 미만	9 (9.8)	6 (6.5)	10 (10.9)	20 (21.7)	31 (33.7)	13 (14.1)	3 (3.3)	92 (100.0)
대졸 이상	8 (5.1)	8 (5.1)	20 (12.7)	38 (24.1)	57 (36.1)	23 (14.6)	4 (2.5)	158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5 (11.4)	3 (6.8)	4 (9.1)	7 (15.9)	15 (34.1)	7 (15.9)	3 (6.8)	44 (100.0)
30~39세	24 (7.0)	13 (3.8)	30 (8.8)	62 (18.1)	124 (36.3)	66 (19.3)	23 (6.7)	342 (100.0)
40~49세	35 (6.7)	25 (4.8)	47 (9.0)	110 (21.0)	186 (35.5)	102 (19.5)	19 (3.6)	524 (100.0)
50세 이상	27 (7.8)	19 (5.5)	35 (10.1)	74 (21.3)	118 (33.9)	53 (15.2)	22 (6.3)	348 (100.0)
자영업 형태별								
순수자영업	59 (7.4)	44 (5.5)	69 (8.7)	141 (17.7)	286 (35.9)	148 (18.6)	50 (6.3)	797 (100.0)
고용주(5인 미만)	27 (7.6)	14 (3.9)	26 (7.3)	76 (21.3)	129 (36.1)	71 (19.9)	14 (3.9)	357 (100.0)
고용주(5인 이상)	5 (4.8)	2 (1.9)	21 (20.2)	36 (34.6)	28 (26.9)	9 (8.7)	3 (2.9)	104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부표 3> 표본 특성별 1인당 연간 매출액의 분포

(단위: 명, %)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1억 원	1억 원 이상	전 체
전 체	312 (24.8)	341 (27.1)	219 (17.4)	117 (9.3)	58 (4.6)	148 (11.8)	63 (5.0)	1258 (100.0)
성 별								
남성	170 (22.1)	215 (28.0)	134 (17.4)	73 (9.5)	37 (4.8)	95 (12.4)	44 (5.7)	768 (100.0)
여성	142 (29.0)	126 (25.7)	85 (17.3)	44 (9.0)	21 (4.3)	53 (10.8)	19 (3.9)	49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미만	132 (28.6)	118 (25.6)	101 (21.9)	36 (7.8)	17 (3.7)	43 (9.3)	14 (3.0)	461 (100.0)
고졸	120 (21.9)	148 (27.1)	93 (17.0)	60 (11.0)	27 (4.9)	72 (13.2)	27 (4.9)	547 (100.0)
대졸 미만	23 (25.0)	24 (26.1)	12 (13.0)	5 (5.4)	7 (7.6)	13 (14.1)	8 (8.7)	92 (100.0)
대졸 이상	37 (23.4)	51 (32.3)	13 (8.2)	16 (10.1)	7 (4.4)	20 (12.7)	14 (8.9)	158 (100.0)
연령대별								
30세 미만	10 (22.7)	11 (25.0)	8 (18.2)	5 (11.4)	3 (6.8)	7 (15.9)	0 (0.0)	44 (100.0)
30~39세	95 (27.8)	91 (26.6)	49 (14.3)	25 (7.3)	14 (4.1)	44 (12.9)	24 (7.0)	342 (100.0)
40~49세	120 (22.9)	141 (26.9)	99 (18.9)	58 (11.1)	26 (5.0)	54 (10.3)	26 (5.0)	524 (100.0)
50세 이상	87 (25.0)	98 (28.2)	63 (18.1)	29 (8.3)	15 (4.3)	43 (12.4)	13 (3.7)	348 (100.0)
자영업 형태별								
순수자영업	136 (17.1)	199 (25.0)	157 (19.7)	96 (12.0)	45 (5.6)	123 (15.4)	41 (5.1)	797 (100.0)
고용주(5인 미만)	133 (37.3)	110 (30.8)	52 (14.6)	18 (5.0)	7 (2.0)	20 (5.6)	17 (4.8)	357 (100.0)
고용주(5인 이상)	43 (41.3)	32 (30.8)	10 (9.6)	3 (2.9)	6 (5.8)	5 (4.8)	5 (4.8)	104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2001).

〈부표 4〉 표본 기초통계

(평균, 괄호안은 표준편차)

변수명	변수의 정의	전 체	남 성	여 성
표본수		1,258	768	490
EARNING	월평균 자영업소득(만원)	162.4 (270.0)	200.5 (310.0)	102.6 (175.5)
Whours	주당 자영업 근로시간	60.3 (21.8)	60.0 (21.0)	60.9 (23.1)
HEarn	시간당 자영업소득(원)	7,320 (13,536)	8,904 (15,324)	4,836 (9,648)
SALES	자영업 매출액(만원)	9,925 (86,815)	12,557 (110,259)	5,801 (16,652)
Nworker	자영업 종사자수(명)	3.24 (7.69)	3.74 (9.45)	2.46 (3.31)
pSale	두당 매출액(만원)	2,964 (4,211)	3,142 (4,371)	2,684 (3,934)
SELFEV	주관적 자영업 만족도 (1-5)	3.27 (.85)	3.27 (.85)	3.27 (.84)
HGC	교육연한(년)	11.094 (3.281)	11.729 (3.013)	10.098 (3.437)
AGE2	연령 30세 미만	0.035 (.184)	0.030 (.171)	0.043 (.203)
AGE3	연령 30세 이상 40세 미만	0.272 (.445)	0.260 (.439)	0.290 (.454)
AGE4	연령 40세 이상 50세 미만	0.417 (.493)	0.430 (.495)	0.396 (.490)
AGE5	연령 50세 이상	0.277 (.448)	0.280 (.449)	0.271 (.445)
ExpSELF	이전 자영업 경험	0.405 (.491)	0.438 (.496)	0.355 (.479)
ExpPROF	이전 전문직 임금근로 경험	0.026 (.160)	0.025 (.155)	0.029 (.167)
MARRIED	기혼 유배우	0.890 (.314)	0.900 (.301)	0.874 (.333)
SINGLE	미혼	0.050 (.218)	0.063 (.242)	0.031 (.172)
NoSpouse	기혼 무배우	0.060 (.238)	0.038 (.191)	0.096 (.295)
StMoney	창업 당시 자본금(만원)	3,608 (5,882)	3,828 (6,508)	3,266 (4,732)
StDk	창업 당시 자본금 모름	0.050 (.218)	0.052 (.222)	0.047 (.212)
Duration	창업 후 자영업 지속기간	8.183 (7.854)	8.443 (8.036)	7.776 (7.549)
DurDk	창업 후 자영업 지속기간 모름	0.006 (.074)	0.004 (.062)	0.008 (.090)
pureself	고용인 없는 자영업	0.634 (.482)	0.590 (.492)	0.702 (.458)
emperS	고용주 (5인 미만)	0.284 (.451)	0.306 (.461)	0.249 (.433)
emperB	고용주 (5인 이상)	0.083 (.276)	0.104 (.306)	0.049 (.216)
자영업 시작 동기				
INHER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0.073 (.261)	0.069 (.254)	0.080 (.271)
FAVOR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0.279 (.449)	0.324 (.468)	0.208 (.406)
Control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0.065 (.247)	0.079 (.271)	0.043 (.203)
FREE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0.134 (.340)	0.134 (.341)	0.133 (.340)
CLOSE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0.046 (.210)	0.017 (.129)	0.092 (.289)
RETIRED	'실직후 생계유지/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로'	0.218 (.413)	0.211 (.408)	0.229 (.420)
OTHREA	'기타'	0.185 (.389)	0.165 (.372)	0.216 (.412)
사업장 위치				
SEOUL	서울	0.253 (.435)	0.271 (.445)	0.225 (.418)
Reg1	인천, 경기, 강원	0.250 (.433)	0.263 (.441)	0.231 (.422)
Reg2	대전권	0.077 (.267)	0.070 (.256)	0.088 (.283)
Reg3	경상권	0.090 (.286)	0.083 (.277)	0.100 (.300)
Reg4	전라권	0.322 (.467)	0.303 (.460)	0.351 (.478)

〈부표 4〉의 계속

변수명	변수의 정의	전 체	남 성	여 성
자영업 업종				
INDMAN	제조업	0.153 (.360)	0.180 (.384)	0.110 (.314)
INDCON	건설업	0.060 (.237)	0.091 (.288)	0.010 (.101)
INDSAL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0.370 (.483)	0.363 (.481)	0.380 (.486)
INDRES	숙박 및 음식점업	0.157 (.364)	0.087 (.282)	0.265 (.442)
INDTRA	운수·창고 및 통신업	0.074 (.262)	0.115 (.319)	0.010 (.101)
INDFIN	금융 및 보험업	0.006 (.074)	0.007 (.081)	0.004 (.064)
INDEST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	0.026 (.160)	0.025 (.155)	0.029 (.167)
INDITS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0.015 (.122)	0.021 (.143)	0.006 (.078)
INDLEA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업	0.105 (.307)	0.089 (.284)	0.131 (.337)
indppp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등	0.031 (.173)	0.020 (.139)	0.049 (.216)
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				
GoalMax	'이윤극대화, '사업의 성장'	0.337 (.473)	0.329 (.470)	0.349 (.477)
GoalSTB	'건전한 재무상태, '안정적 사업유지'	0.498 (.500)	0.516 (.500)	0.471 (.500)
GoalENT	'고객의 호평, '상품서비스 개발'	0.055 (.228)	0.053 (.225)	0.057 (.232)
GoalNO	'없음, 단기적 사업유지 급함'	0.101 (.301)	0.090 (.286)	0.118 (.323)
창업훈련 여부				
TRAIN1	'정규학교 교육'	0.012 (.109)	0.010 (.102)	0.014 (.119)
TRAIN2	'정규학교 특수교육'	0.020 (.140)	0.020 (.139)	0.020 (.142)
TRAIN3	'영리단체의 프로그램'	0.015 (.122)	0.013 (.113)	0.018 (.134)
TRAIN4	'비영리단체(정부제외) 프로그램'	0.021 (.142)	0.025 (.155)	0.014 (.119)
TRAIN5	'프랜차이즈 교육'	0.027 (.162)	0.030 (.171)	0.022 (.148)
TRAIN6	'본인 사업체 제공 프로그램'	0.013 (.112)	0.012 (.108)	0.014 (.119)
TRAIN7	'정부제공 창업프로그램'	0.014 (.116)	0.013 (.113)	0.014 (.119)
TRAIN8	'기타'	0.079 (.269)	0.085 (.279)	0.069 (.254)